

제주대신문에는 진실을 향한 용기와 따뜻한 가슴이 있습니다.
세상을 품고자 하는 그대, 세상을 새롭게 하자 하는 그대에게
제주대신문은 길이고 희망이고 싶습니다.



진리
정의
창조

제주대신문

2007년 9월 5일 수요일 제785호

1954년 5월 27일 창간 (주간) ● 발행인 고충석 주간 이창익 편집장 정선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 66 (690-756) | 전화: 754-2278~9 (FAX 756-2204) | 인쇄: 제주일보사

로스쿨 유치 경쟁 '총력전'

특별자치도 · 총동창회 등 로스쿨 추진위원회 구성

특성화 분야 '국제법무'로 승부

로스쿨 설치 법안이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제주대가 로스쿨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대는 로스쿨을 유치해 도내·외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국제 법률, 국제거래 등을 전달할 전문 인력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가심사기준의 교육과정, 교원, 교육시설 등 8개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로스쿨 유치 대학으로 선정되기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로스쿨 설립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양대성 제주도의회 의장을 지난달 29일 로스쿨 유치 제주도 지원본부와 로스쿨 설립 범도민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총석 총장,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제주대 총동문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 유치위원회가 결성돼 활동 할 예정이다. 유치위원회는 2009년 로스쿨 개원까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서명 운동과 로스쿨 홍보,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등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효연(생명공학) 기획처장은 "로스쿨 유치에 대한 경쟁력의 사활이 걸린 만큼 제주대가 인가심사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전용 건물인 법학관 2호관도 지난 5월 이미 착공했다. 외국어교육관 남쪽에 위치한 건물은 "로스쿨 유치는 제주대 구성원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약 57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어학실습실 등의 공간이 마련된다.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에서 가장 높은 점수 비중은 교과과정과 교원이다. 29%의 비중을 차지하는 교과과정에서 제주대는 국제 법무를 특성화 분야로 선택했다.

국제법무는 국제거래, 금융, 투자, 외국법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

할 예정이다.

제주대는 지난달 9일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채용공고를 냈다.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접수를 받아 현재 16명에서 4명의 교원을 더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우수 교수를 채용해 30명 이상의 교원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대학장 권영호(법학) 교수는 "로스쿨 유치는 제주대 구성원

은 물론 제주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며 "제주대 학생들의 경쟁력과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스쿨 전국순회 설명회가 오는 10일 오후 6시 30분 국제교류회관에서 열린다. (주)리스터리에서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로스쿨 입학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

2학기 교내 장학생 선발을 위한 예산이 0.5% 하향 조정됐다. 이에 2007학년도 장학금 예산이 총 11.5%에서 10.5%로 감소됐다.

이는 기성회 예산 대비 장학재

원을 1% 하향 조정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약 2억5000여만원이 감소해 2학기부터 성적우수와 업무 보조 장학생 선발 인원이 대폭 감소하게 된다.

이같은 조정으로 지난해 12월 선발된 2007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혜자에게는 추가 보조금 1억 3000여만원을 지원받아 장학금으

로 지급했으나 2학기부터는 교내 장학생 선발 인원 자체가 줄고 다음해까지 계속 하향될 경우 전체 장학 재원지침을 재검토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우리대학이 전국 대학평가 중 학생장학금 비율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젠 이 미쳐도 보장할 수 없을 것 같다"며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지혜(지리교육 2) 학생은 "학

생회에서도 등록금 협상 시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 장학금과 같은 학생복지 측면 예산이 더 이상 하향 조정되지 않도록 끼여 묻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철(재정과) 과장은 "이번에 장학재원과 소모성경비 부분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됐다"며 "기존의 장학금보다 위축되지 않도록 복지 후생경비, 교육여건 개선, 취업률 향상 등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선희 기자 ssun@cheju.ac.kr

교내 장학금 예산 1% 하향 조정

성적우수·업무보조 장학생 인원 대폭 감소

국내 최초 오픈 소스 개발 강의

다음, 오픈소스 개발자 육성 및 이해도 넓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컴퓨터 공학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픈소스 관련 '오픈소스개발 방법론' 강의를 진행한다.

오픈소스는 소수 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나타난 사회적 움직임이다. 소프트웨어의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를 공개해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현재 오픈 소스 사용자는 많지만 개발자는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오픈 소스의 기본기

를 교육시키고 이해도를 넓히기 위해 이번 강의를 개설했다.

프로젝트에서 활약 중인 협력 개발자들이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설치되는 '오픈소스개발방법론'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직접입힐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필요한 역량과 덕목도 함께 배양할 방침이다.

강의는 유령공개 소프트웨어인 파이어폭스의 한국어 버전을 개발한 다음의 운석찬 DAN Lab 팀장이 주임교수를 맡고 아파치 파이썬(Python), 오픈 오피스 등 해외 유명 오픈소스

개인과 함께 참여하는 강의로 진행된다. 특히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제주와 산학협력 협약으로 'Daum Track'을 신설해 인터넷산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angej@cheju.ac.kr

'지식'을 뉘다

중앙도서관이 새학기를 맞아 활기를 찾았다. 지난 3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jieun@cheju.ac.kr

김부찬·임상빈 교수 미국인명연구소 자문위원 임명



김부찬(법학) 교수와 임상빈(식품생명공학)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 편찬 기관의 하나인 미국인명연구소(ABI)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

미국인명연구소는 1967년부터 분야별, 연도별로 인명사전을 발간해 왔으며, 발간된 인명사전은 하버드와 스탠퍼드 등 유명 대학과 국회 등에 자료로 쓰이고 있다.

김부찬 교수는 "국제적인 연구소로부터 평가를 받은 보람을 느낀다"며 "대학교수로서 학생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에 더욱 정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두 교수는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스 후즈 후'의 인명사전에 등재된 바 있으며 2008년에도 등재될 예정이다.

박중건(국어국문 1)
기자로 임명함
이상 9월 1일자

CNN 지국장 손지애 씨
그녀의 20대를 youngsamsung.com에서 들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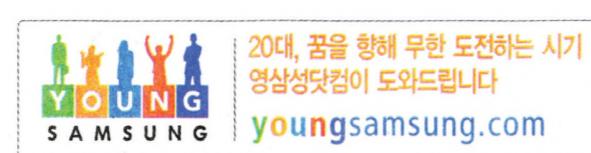


Youngsamsung.com은 늘 당신의 열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죠

스스로의 열정을 조율하고, 자제할 수 있는 지혜와 노하우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youngsamsung.com으로 오세요. 당신의 인생은 더욱 풍요로워져야 하니까요

그녀만의 20대가
그녀를
CNN 지국장으로
만들었다.



- ▶ 20대, 그 치열한 삶을 먼저 산 선배들의 진솔한 사연이 있습니다. '명사의 20대'를 통해 그들의 열정을 느껴보세요.
- ▶ 대학에서는 겪을 수 없는 다양한 경험과 폭넓고 끈끈한 휴먼 네트워크의 진수, **열정운영진, 캠퍼스통신원**에 도전하세요.
- ▶ 졸업 후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의 적성과 맞는 곳은 어디일까? **삼성그룹체험**을 통해 직접 보고 느껴보세요.
- ▶ 친구들과 나누는 **진로, 여행, 연애, 고민 이야기**, 알토란 같은 **지식**, 신나는 이벤트로 기득한 곳, **영상성단김과 오늘 바로 1촌 맛나다!!**

당신 열정의 지지자



백두관 떠나는 학생들... 식당은 '적자'

식대 인상 보다 식단 변화 등 질적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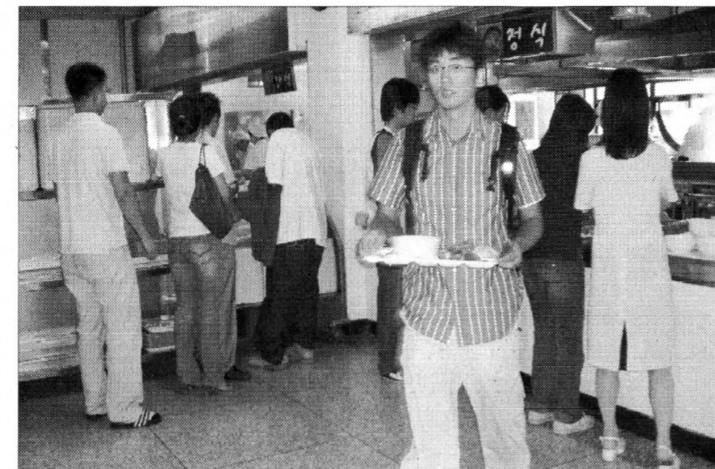
학생들 방학 중 공사도 불만

백두관 학생식당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식대 인상 및 방학 동안 실시된 내부 공사와 관련해 학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식당은 지난 1일부터 2년 만에 양식과 라면을 제외한 식대를 200원 인상해 정식, 중식이 1500원에서 1700원, 특식이 230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했다. 자판기 커피 값도 50원 인상된 200원으로 결정됐다.

소비조합은 2007년 5월말 사업 경영상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식당 적자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고 총학생회 측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식대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4천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고 식



백두관 학생식당을 찾는 학생들이 줄고 있어 매년 적자를 면지 못하고 있다.

재료비의 대폭 인상, 경기침체, 정·후문 상권 형성 등에 따른 식당 이용자수의 감소로 식대인상과 업무보조학생 고용을 줄이는 방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난 방학 동안 식당 내부의 노후화된 가스배관을 점검하고 주방 퇴식대 컨베이어시스템 보완 공사, 조리실 에어컨 공사 등으로 1개월 동안 학생식당 영업이 중단돼 학생들의 불만이 커졌다.

이용 중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방학 때마다 실시되는 내부수리 기간과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수미(행정 2) 학생은 "학생식당이 근본적인 적자를 없애기 위한 식대 인상에 앞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메뉴나 질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 학생들의 발길을 돌려야 한다"며 "방학

1개월 가량 식당 내부 공사로 영업을 중단한 것은 식당 층에서 이용자에 대한 배려 없이 단순히 통보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학복지과 관계자는 "우리 또한 식대 인상 후 메뉴를 다양하게 바꾸고 질적인 부분에서

김상림 원장, 제3대 제주대학교 병원장 연임

지역암센터 유치 등 제주도 의료 발전 기여



제3대
제주 대
교 병
원 장 애
김 상 림
현 원장
이 연임
됐다.
교 육
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9일 김상

림 현 원장을 재임용했으며 임용기간은 3년이다. 김 병원장은 지역암센터를 유치하고 고진복지부 중소병원 의료기기 평가에서 '최우수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제주도 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약력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 의과대학(29회 졸업)
△제주대학교병원(04-현)

김은정 기자 kangej@cheju.ac.kr

학점포기원서 접수

오는 27일까지

학점포기원서 접수를 오는 27일 까지 받는다.

7개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들 중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이 'C' 이하인 교과목을 6학점까지 포기 할 수 있다.

학점포기원서 서식은 홈페이지 아리광장 자료실에 게시돼 있으며 학점포기원서를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와 함께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교선회 기자

제2회 아라여성축제 '맑은날의 레인보우 로망스'가 오는 11일 한리터와 학내 곳곳에서 열린다. 맑은날 총여학생회(회장 강기옥 부역 3)가 주최하고 해냄 여성상 담소와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우 의학 교수)가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제2회 아라여성축제 11일 개최

양성평등·여성권위 향상 위한 자리 마련

연과 함께하는 남과여 강의', 개그맨 유서윤이 진행하는 '보릿빛 향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해냄 여성상담소에서는 여성폭력 극복을 위한 각종 행사와 평화 담소 선언서를 작성하는 '평화남성이 됤다'를 마련한다. 건강증진 센터에서는 '성폭력 안하기 3만인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총여학생회 강기옥 회장은 "여성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도민들도 참여해 여성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2회 아라여성축제 '맑은날의 레인보우 로망스'가 오는 11일 한리터와 학내 곳곳에서 열린다. 맑은날 총여학생회(회장 강기옥 부역 3)가 주최하고 해냄 여성상 담소와 건강증진센터(센터장 김문우 의학 교수)가 참여하는 이번 축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축제는 축제일정 정보와 차를 제공하는 '빨리 모여라 맑은날이 기다린다', 여자 축구대회 '주리기 월드컵', 팔씨름 대회, 점심제공, OX퀴즈 등의 '노세노세'에서 노세', 메이크업과 네일아트를 무료로 체험하는 '초라하지 않은 나', 요리대회 '파송송 계란탁', '남궁

연과 함께하는 남과여 강의', 개그맨 유서윤이 진행하는 '보릿빛 향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해냄 여성상담소에서는 여성폭

력 극복을 위한 각종 행사와 평화

담소 선언서를 작성하는 '평화남

성이 됤다'를 마련한다. 건강증진

센터에서는 '성폭력 안하기 3만인

서명운동'을 할 예정이다.

총여학생회 강기옥 회장은 "여

성 불평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권리를 찾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도민들도 참여해 여

성의 인권에 대해 배우고 서로 화

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

다"고 말했다.

단과대학 축제 학내 곳곳에서 진행

홍향제 6일 · PARNASSUS 7일

새 학기 개강을 맞아 학내 곳곳에서 단과대학 축제가 이어지고 있다.

수학교육과 학술제 '시그마제'가 지난 1일 개최돼 단과대학 축제의 시작을 알렸다.

'시그마제'는 예비교사로서 수학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탐구의 일종으로 게임을 수학교육에 적용한 '재미있는 수학게임'이 진행됐다.

뒤이어 오는 6일 중어중문학과

에서 주최하는 '홍향제'가 진행된다. 이어 일어일문학과 '파랑제' 13일, 의과대학 '의연제' 14~15일, 언론홍보학과 'Key frame' 17일, 동아리연합회 '대동풀이' 17~18일, 법학부 '모의 재판' 19일, 독일학과 'IFDK FEST' 19~20일, 경상대학 '시율제' 19~21일, 사범대학 '사록대동 미당체전' 19~21일, 무역학과 '모의 상사증개' 20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오는 6~8일 개최되는 자연과학

대학 '연광제' 외에도 공과대학

'여울배 축구대회' 7~13일까지

열린다. 이어 일어일문학과 '파랑

제' 13일, 의과대학 '의연제'

14~15일, 언론홍보학과 'Key

frame' 17일, 동아리연합회

'대동풀이' 17~18일, 법학부 '모의

재판' 19일, 독일학과 'IFDK

FEST' 19~20일, 경상대학 '시율

제' 19~21일, 사범대학 '사록대동

미당체전' 19~21일, 무역학과 '모

의 상사증개' 20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영어교육과가 주최하는 '제31회

PARNASSUS'는 오는 7~8일까지

이를 동안 열릴 예정이다. 축제의

첫째 날은 '영어마을'이 사범대학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시설보수, ONE STOP 서비스 실시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요청… 즉시 대처

"시설물 보수, 이제는 ONE-

-STOP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지난 7월부터 운영되는 ONE-

-STOP 서비스는 신속하게 시설물

을 보수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수요자가 시설물

보수를 요청하면 즉시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이전의 시설보수는 공문 작성

또는 담당자에게 요청을 하는 등

끼다로운 절차로 민원의 불만이

초래됐다.

그러나 ONE-STOP 서비스 시행

은 모든 시설의 보수사항을 구내

전화 3003번이나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있다.

ONE-STOP 서비스가 학내 구성

원의 호응을 얻는 가운데 사소한

부분까지 보수요청이 잇따르고 있

다. 학과방의 선풍기 수리, 전구

교체 등 학과사무실 또는 행정실

에 문의해야 할 보수요청도 다수

접수되면서 시설과 측에서 부담해

야 하는 업무가 늘었다.

이에 대해 시설과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ONE-STOP 서비스를 홍보해 학내 구성원들이 보수 서비스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있다.

고지와 사회화과 2) 학생은 "예전에는 시설물이 고장이 나면 어디로 보수요청을 해야할지 몰랐다"며 "이제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히 보수요청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시설과 관계자는 "아직은 시설

보수 서비스가 시행 초기 단계라

시설분야가 아닌 모든 불편사항이

신고되고 있다"며 "그러나 차츰

민원인들이 이 서비스를 이해한다

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jieun@cheju.ac.kr

김진호 정외과 교수 등 9명 보직 임용

임기 2년 동안 제주대 발전 이끌 것



지난 3일 총장실에서 보직 교수 임용장을 수여식을 갖은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찬(체육학부) 교수를 포함한 총 9명의 보직 교수 임용장 수여식이 지난 3일 총장실에서 진행됐다.

체육진흥센터소장으로 김성찬(체육) 교수, 탐라문화연구소장 해남춘(국어국문) 교수, 관광과경영경제연구소장 이진희(관광개발) 교수, 평화연구소장 김진호(정치외교) 교수, 아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장 김인중(생명공학) 교수, 해양

과환경연구소장 전유진(해양과학)

교수, WISE프로그램제주지역센터

소장 방은숙(정보수학) 교수, 교육

과학연구소장 현승환(국어교육) 교수, 생명자원과학대학 부설연구실

센터소장으로 소인섭(생물산업)

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2년의 임기 동안 각 센터 및 연

구소의 특성화를 통해 제주대와

제주도를 연구중심으로 이끌어나

가는데 중주 역할을 할 것이다.

제주대·대인과기대학 학술교류협정 체결

대의원회 상반기 감사평가 공개

간이 영수증 과다 사용·금액 불일치 등 지적 사례 많아

사생결단 대의원회(의장 고창근 회계 4)가 지난달 1일 '2007학년도 상반기 감사평가' 결과를 자유게시판 통해 공개했다.

학생자치기구와 각 단과대학 학회를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여부, 회계장부 작성, 공약 실천 여부와 실행 계획, 사업에 관한 학우들의 참여도 및 흥동부분에 관한 전반적인 감사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평가는 간이 영수증 과다 사용, 회계장부상의 오류, 결산서 오기, 금액 불일치 등 매번 지적되던 사항이 반복됐다. 여러 가지 평가 기준과 처벌 규정에 대한 강력하고 다양한 기준이

동아리연합회 회장 연락 두절

필요하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재 감사세칙에 관한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며 여러 가지 세칙상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은 처벌 규정과 벌점에 대한 중요성을 강화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먹구구식 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

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의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감사시행과 선거시행 세칙, 학생회칙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개정해 새로운 세칙집을 단과대학마다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동아리연합회 서인석(해양생산 4) 회장이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감사 당시에도 불참했다. 감사와 관련된 자료, 통장, 장부 등 여러 업무 자료를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의원회는 동아리연합회에 예산 정지 처벌을 내리고 제출하지 않은 감사 자료를 다시 제출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다.

대의원회 고창근 의장은 "동아리연합회 경우 특별감사보고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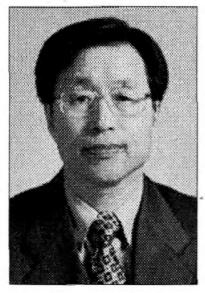
공개하고 학생총회, 총운영위,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될 문제이며 해결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시행 세칙에 징계 내용이 뚜렷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며 점수제를 도입해 각 항목마다 일정 점수를 둬 기준 점수를 넘을 때마다 예산 감작, 정지 등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장부와 그 밖의 자료를 공개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높아짐에 따라 9월 중 백두관 1층에 상반기 감사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고선희 기자

박태수 교수

한국상담학회 회장 선출



박 태 수
(교 육 학
과) 교
수
가 지난
달 16~18일
열린 '2007
한국 상
담
학회
연차
대회'에
서 제5대 한
국상담학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난 2000년에 창립한 한국상담학회는 상담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내 학회로 한국 상담의 발전, 학문적인 정체성의 확립, 국민의 정신건강과 성장발달에 기여하고자 출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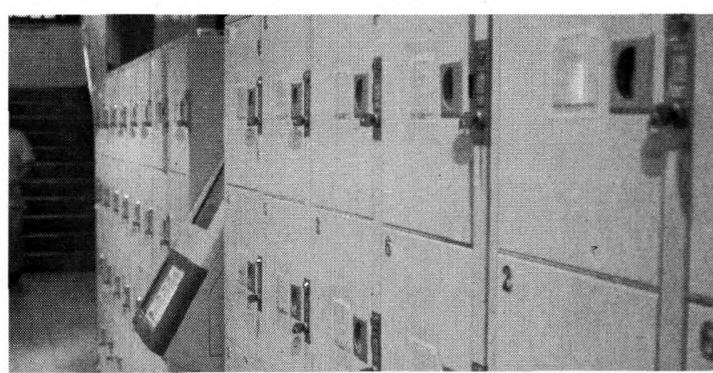
이에 따라 박교수는 오는 2008년 8월부터 일기 2년 동안 한국상담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박태수 교수는 "차기 학회장으로서 각박해진 현대 생활에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정신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다"며 "상담 전문가들의 전문성을 보다 높여 학문적인 사회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선희 기자 ssun@cheju.ac.kr

도서관 전자사물함 이용 저조

시간 늘리는 방안 강구해야



중앙도서관 내 전자사물함을 설치했지만 학생들에게 외면 받고 있다.

중앙도서관(관장 고성호 회계학과 교수) 내 사물함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된 전자사물함이 번거로운 사용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전자사물함은 2003년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회 예산으로 총 96개를 마련했다.

처음 도입된 때에는 50% 내외의 사용 실적을 보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 하루에 10회 정도의 미비한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자사물함 사용 시 학생증 바코드를 4시간마다 찍어 연장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어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것

으로 나타났다.

손승한(통신컴퓨터공학부 1) 학생은 "전자사물함 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며 "전자사물함 시간을 개인이 정하거나 늘리거나 늘리는 등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서관 흥이준씨는 "사물함 개인독점을 막기 위해 사용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전자사물함에 익숙해지고 조금의 불편을 감수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전자사물함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park12@cheju.ac.kr

일본 IT기업 초청 설명회

지난 21일 개최

'일본 IT기업 초청 설명회'가 지난달 21일 제주시 리마호텔에서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가 주최하고 일본교토정보대학원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는 IT와 일본에 관심 있는 학생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IT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취업계획을 세워볼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는 (주)DGIC, (주)넷세이콤, (주)ekzm 등 총 9곳 기업이 참가해 업무를 설명했다.

뒤이어 기업들이 부스를 설치해 학생들에게 취업방침과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면접을 실시했다.

하세가와 와타루(교토정보대학원) 이사장은 "현재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체에 IT산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참석한 학생들이 부족한 IT산업 공급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임정범(전기전자 3) 학생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쉽게 듣지 못하는 일본IT기업 정보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며 "그렇지만 설명회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부족해 면접을 보면서 생각한 것과 다른 점이 많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박중건 기자 park12@cheju.ac.kr

이주의 행사

△의류학과
졸업작품전 CJNUFAC (파션쇼)
일시: 9월 5일 오후 3시, 7시
장소: 한라체육관
주최: 의류학과 학생회

△체육진흥센터
- 9월 6일~8일: 자연대학체육대회
- 9월 9일: 생명대학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체육대회
장소: 체육관

△제2학기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프로그램 참여 학생 모집
기간: 9월 7일까지
접수: 직업능력개발원

△제42회 전도 중고생 문학백일장
일시: 9월 7일 오후 2시
장소: 경상대학 세미나실

△제1차 온-오프라인 영어강좌
개설강좌: 온-오프라인(튜터링)
영어강좌
강좌기간
- 제1차: 2007. 10. 01-12. 31 (3개월)
- 제2차: 2008. 01. 03-03. 31 (3개월)
신청기간: 9월 7일까지
장소: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홈

페이지 (<http://oceannuri.cheju.ac.k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친환경해양산
업누리사업단 홈페이지 게시판 참조.

△07년 2학기 중소기업근로자
학자금 지원안내
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지원액: 등록금전액(200만원 이내)
신청기간
- 등기우편접수: 9월 8일까지
- 방문접수: 9월 14일까지
- 접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T. 064-723-0703)

△행사유치 및 개최지원을 위한
제주컨벤션설명회
일시: 9월 10일 오전 11시
신청서 제출기한: 9월 4일까지
장소: 국제교류회관
(세부장소 추후 공지)
대상: 국·내외 한글행사 개최에
관심이 있는 교수
기타: 참가신청서 접수처
(전화: 739-1803, 팩스: 739-1805)
△창업동아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신청접수기간: 9월 11일(화)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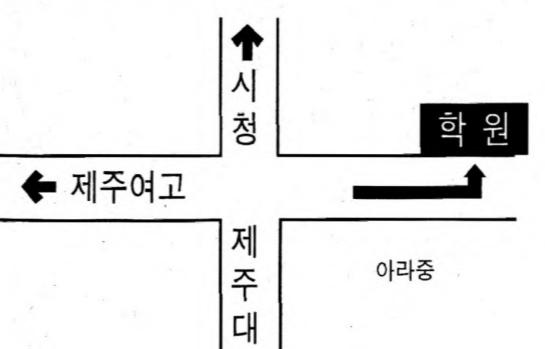
신청접수 : 사업단 사무실
문의: 청정에너지 특화인력 양성
사업단 사무실 전화 2481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안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
신청기간: 9월 13일까지
대출실행기간(농협, 제주은행):
등록기간 중 대출여정
자격조건: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포털사이트 참조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2007학년도 2학기 모의토익 시행
신청방법: 사업단 홈페이지
(<http://oceannuri.cheju.ac.kr/>)-누리
사업 참여학생 지원센터
시험장소: 추후 홈페이지에 공지
기타사항: 시험일시 및 접수기간은
사업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
며, 변경된 사항은 사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함.
매회 응시자수가 50명 미만일 경우
시험이 취소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
은 친환경해양산업누리사업단 홈페이지
자 참조

제주대학교 발전 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 매주 운전면허 기능시험 자체 실시
- 셔틀버스 운행: 제주대 ↔ 학원(08:30~17:00)
매시 30분 제주대 정문앞 출발
- 주말교육 가능 ○ 필기시험 교재 배부



제주시 아라2동 1320 (제주여고 입구 동쪽)
전화: 755-9900

제주여고 입구 건너편(다리) ⇌
학원 셔틀버스 운행

곽이부·김수길 교수 등 8명 정년퇴임



정년퇴임식 행사가 지난달 30일 법정대 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년퇴임 교수는 곽이부(중어중문), 김수길(법학), 부만근(행정), 이현종(생물산업), 정상철(해양과학), 노섬(해양과학), 흥성락(물리), 한성빈(화학) 교수로 총 8명이다.

다음은 퇴임 교수 주요 약력이다.

▲곽이부 △서울대 축산학과 졸업(66) △고려대 대학원 법학석사(71) △전임강사(81)

▲부만근 △제주대 법학과 졸업(62)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석사(77) △전국대 대학원 행정학석사(77) △전임강사(85)

▲이현종 △서울대 축산학과 졸업(66) △고려대 대학원 농학석사(76) △일본 북해도 대학원 농학원 농학박사(83) △전임강사(69)

▲정상철 △부산수산대 종식학과 졸업(66)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석사(80) △전임강사(78)

▲노섬 △부산수산대 종식학과 졸업(64)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석사(83)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박사(88) △전임강사(85)

▲흥성락 △경북대 물리학과 졸업(68) △경북대 대학원 물리학석사(70) △동국대 대학원 물리학박사(87) △전임강사(77)

▲한성빈 △부산대 화학과 졸업(61) △부경대 대학원 이학석사(70) △동아대 대학원 이학박사(80) △전임강사(81)

경대 대학원 농학박사(81) △전임강사(69)

▲노섬 △부산수산대 종식학과 졸업(64)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석사(83) △부산수산대 대학원 수산학박사(88) △전임강사(85)

▲흥성락 △경북대 물리학과 졸업(68) △경북대 대학원 물리학석사(70) △동국대 대학원 물리학박사(87) △전임강사(77)

▲한성빈 △부산대 화학과 졸업(61) △부경대 대학원 이학석사(70) △동아대 대학원 이학박사(80) △전임강사(81)

제6대 총장 부만근 교수

"퇴임 후에도 학교 발전 위해 최선"



- 퇴임
소감
"설립함
보다 아쉬
울이 앞선
다. 교육
자로서 학
생들을 가
르치는 것
은 물론 연구활동, 학교 대표자
로서의 역할 등 제주대 발전을
위해 좀 더 힘쓰지 못한 것이
아쉽다."

대학원 병원을 새로운 부지에
착공할 수 있었던 것은 각고의
노력의 결과였다. 신축 결정이
쉽게 나지 않았지만 대학 구성
원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신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
문에 이뤄낸 성과였다."

- 앞으로의 계획
"퇴임을 제2의 인생을 위한
전환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시
간적 여유가 생긴 만큼 지난날
을 되돌아보고 연구 활동을 하
려 한다."

"제주대를 졸업하고 30년이
넘도록 교육자로서 재직했다.
그 중 4년은 학교의 대표자 역
할도 했다. 나와 제주대의 인연
은 쉽게 끊을 수 없을 만큼 깊
고도 깊다. 평생 제주대 발전을
위한 관심을 버릴 수 없을 것이다.
퇴임 후에도 학교 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면 작은 일도 마다하지 않겠
다."

정선희 기자 sun@cheju.ac.kr

제주대신문

55기 수습기자 모집

'제주대신문'은 새학기를 맞아 55기 수습기자
를 찾습니다. 꿈과 열정을 가진 신입생이라면
도전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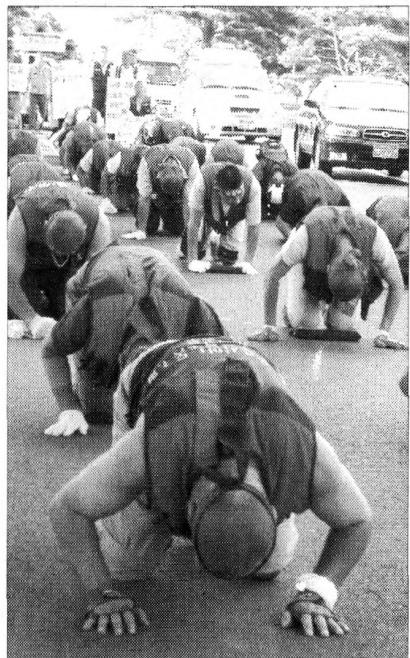
△지원자격 : 제주대학교 07학번 신입생

△원서접수 :
마감 - 10월 4일(목) 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 - 본관 직업능력개발원 3층

제주대신문사

장기화된 삼영교통 파업 '일단락'

'시민의 발' 담보한 임금싸움 안돼… 정상운행 최선을



버스 노동자 현실은

삼영교통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지난 2월부터 임금인상 및 생활임금보장과 배차시간표 조정, 협법상 권리인 노조의 기본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노동쟁의에 돌입해 왔다.

노조는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약 1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배차 간격 대기시간과 주유시간 등을 제외한 12시간 35분만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았다. 평균월급은 14일 만근(28일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인 3480원을 받는 셈이다. 게다가 2004년까지 지급되던 식대가 2005년 1월부터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돼 식비보장은 물론 시급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무리한 배차시간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승객 안전을 위해 배차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노·사측의 갈등은 지난 5월 25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첫 조정이 시작됐으나 양측의 협력한 입장

지난달 27일 삼영교통 노조원들이 삼보일배 행진 등 파업을 시행하고 있다.

차이로 결렬 됐었다. 그 후 4개월간의 협상 끝에 단체교섭 26개 조항 중 24개 조항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 그러나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노조 사무실 설치와 전임자 배치는 합의되지 않았다.

노조측은 지난달 24일 전면파업을 선언하고 지난달 27일 제주시 신제주로부터 도로에서 사측의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며 구성원들이 삼보일배 행진을 했었다.

도민들 불편 '뒷전'

노조측이 지난 6월 6일부터 법정근로

시간 8시간을 준수하며 준법투쟁을 지켜왔으나 지난달 24일 전면파업선언을 하면서 배차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삼영교통 운행노선은 10개 노선(95대)에서 8개 노선(72대)으로 줄어들었다. 봉개에서 한내대 방송원인 26번 버스와 외도에서 월평 방향인 36번 버스 노선이 사라진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여객, 삼화여객, 극동여객 등 5개 시외버스업체에서 2개 노선을 대치해 운행하고 있다. 그러나 배차시간이 일부 변경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7~8월 기간에는 37, 92, 100번 등 버스가 평일운행에서 휴일 배차시간

으로 변경돼 시민들의 혼란을 더해졌다. 이러한 버스 운행은 이달 학생들이 개학을 맞아하면서 더 큰 혼란을 안겨 줬다.

김민선(회계 2) 학생은 "버스 파업 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나와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이 이번처럼 아니

다"며 "노·사측의 협상이 타결된 만큼

버스가 빠른 시일 내 정상운행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사측 합의 이뤄져

삼영교통은 7개월의 장기 파업으로 인해 시민들 뿐만 아니라 비노조원들에게 피해가 커져 노조측과의 합의를 서둘렀다.

설립이래 20여년간 노조가 없었던 삼영교통은 갑작스럽게 노조가 결성됨에 따라 그 대책도 늦어졌다는 입장이다.

최근 삼영교통 노·사측은 단체협약안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가족인했다.

노조측은 지난 4일 사측에서 제안한 단체협약안에 대해 조합원들을 상대로 친반투표를 실시했다. 111명의 조합원 중 59명이 참가한 가운데 41명이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10명의 반대표와 8명의 기권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삼영교통은 5일 정오 노조측과 협상을 타결하고 조인식을 가질 계획이다.

삼영교통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 혼란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죄송하다"며 "협상이 타결된 만큼

버스가 조만간 정상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psy@cheju.ac.kr

현장을 가다 :

'사랑의 학교'에서 펼쳐지는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인력 양성사업

장애인 대상 전문상담인력 키운다

지역 고용 창출 확대도 기대



지난 1일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워크샵을 진행했다.

장애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한 그들. 장애인들이 생활이나 노동 환경에서 겪는 불편함을 덜어주고자 모인 이들이 지난 1일 제주시 한화리조트에 모였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교육을 받는 수강생들로서 지난달 4일부터 제주 국제 교류 회관에서 매주 교육을 받고 있다. 온라인 교육과 동시에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교육 진행 정도를 점검하고 관련 특강도 듣고 있다.

교육생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이 후 치러지는 자격시험에 합격해 장애인 직업 생활 상담원 자격증도 발급받게 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캠페인, 보조공학 시연회, 장애인 채용박람회 등 장애인 고용 촉진과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생 김정숙(34)씨는 "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며 "장애인 고용업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의 문영자 박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이 사회에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관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우식 부총리 강연

오는 7일 국제교류회관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오는 7일 오전 11시 국제교류회관에서 '이공계 대학순회 특강'을 갖는다.

제주대가 주최하고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이번 특강은 '21세기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 정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또한 최근 나타나는 이공계 기피 현상과 이공계 위기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다.

정보통신원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콘텐츠 재편집 활용 등 다양성 확보

정보통신원(원장 이개명 전기전자공학 교수)이 내년 1월부터 전국 초중등 교사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연수원을 운영한다.

원격교육연수원은 지난 6월 교육인적 자원부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 평가 부문에서 모두 적

합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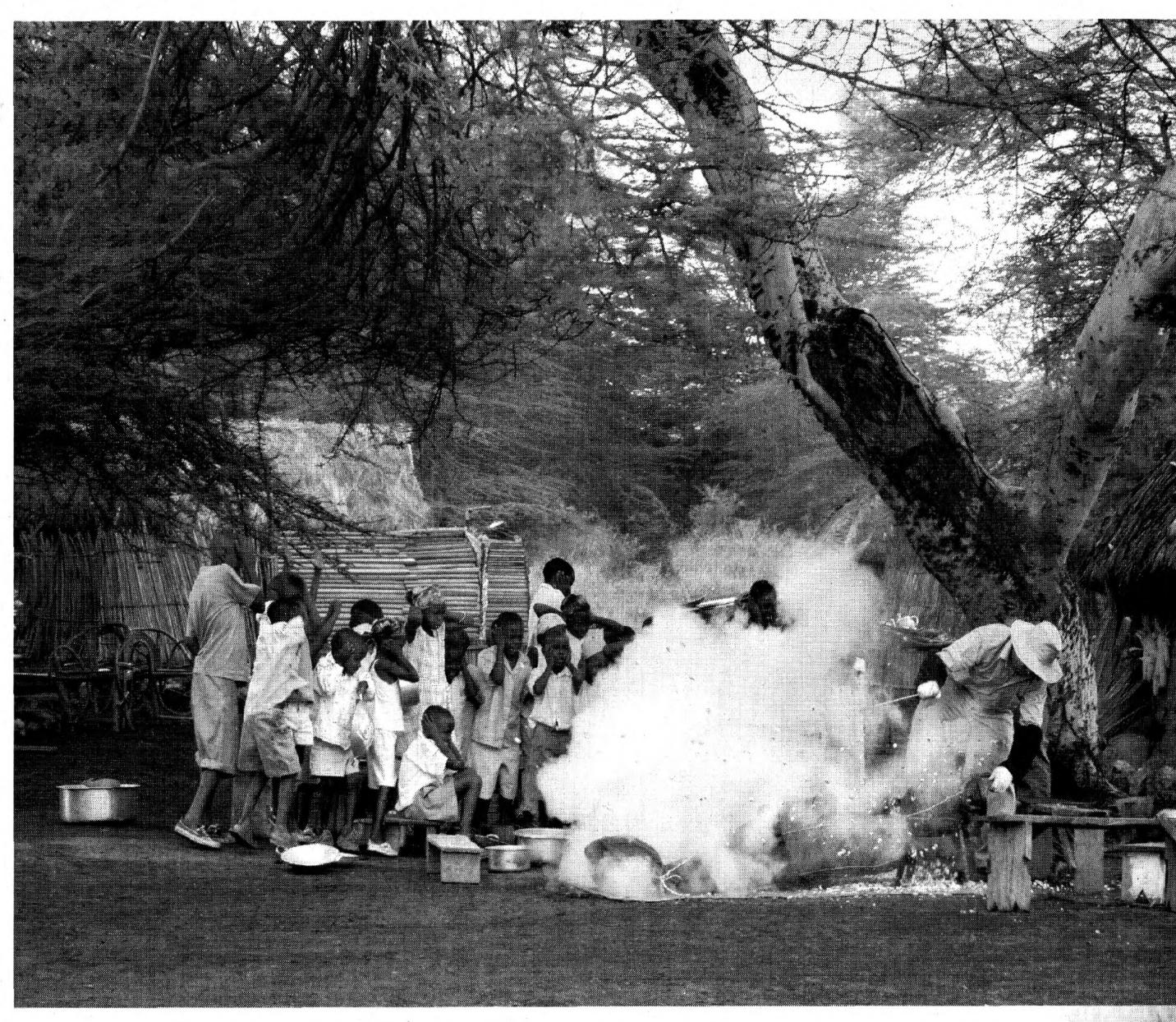
정보통신원은 지난 2003년 교육부가 전국 최초로 지정한 '제주권역 대학-리딩자원센터'를 운영하며 양질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제주대 학생뿐만 아니라 제주도민들에게도 제공해왔다.

또한 대학-리딩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성적을 거두고 그동안의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이번 원격교육연수원 인기를 받아냈다.

정보통신원은 전국 초중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대학 홍보와 e-러닝의 위상 강화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 강좌는 직무연수와 자율연수로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를 재편집해 활용하고 타 연수원과의 MOU 체결을 통해 콘텐츠를 공동 활용함으로서 예산 절약과 강좌의 다양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작은 알곡으로
온 동네는 행복한 웃음이 채워집니다!

조용했던 탄자니아 만이라 마을,

오늘은 낮선 땅에서 온 뻥튀기기 때문에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릇 가득 옥수수를 가져온 아이도, 한 줌도 못 가져온 아이도 설레기는 마찬가지,

평소에 나오고 알곡을 못 가져온 아이의 빈 그릇에도 옥수수가 가득 담겨집니다.
온 동네 아이들의 그릇에 하얀 행복이 끌고온 나눠 담겨진 이 순간;

모두의 얼굴엔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미소가 담겨집니다.

세상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posco
스마일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www.posc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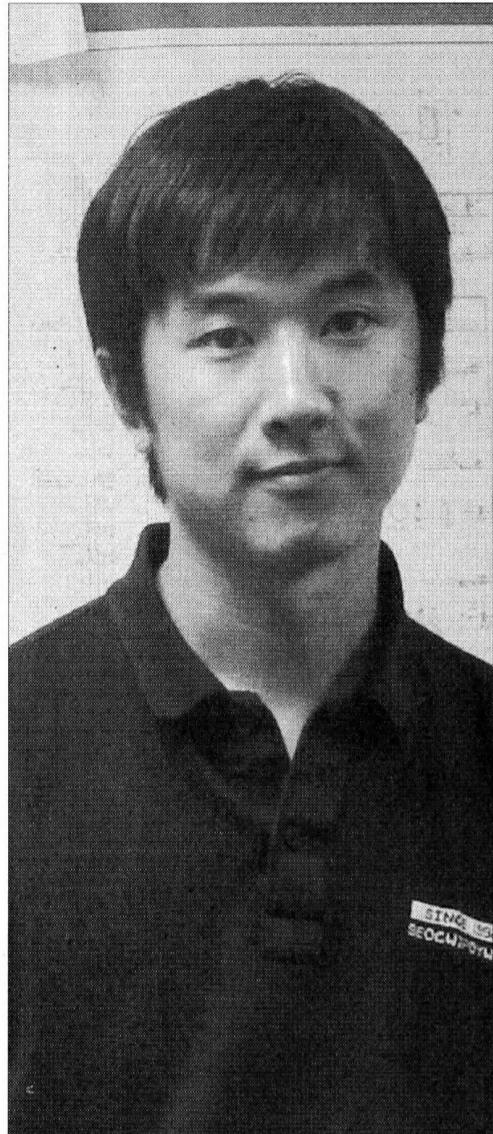


문화

◆ 대학생 인턴십 체험기

“도전하는 이가 아름답다” ······▶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한 실무경험쌓기 … 취업시 많은 도움 돼



김형남(전기공학 3) 학생

“실무경험이 중요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말이다. 아르바이트가 사회경험에 많은 도움이 된다지만 직접 실무를 배우기에는 무언가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론을 빼놓아서 아는 것만으로는 더욱 안 되니 이를 어찌하란 말인가.

이런 말을 생각하는 사람 있다면 그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다. 많은 기업에서 인턴십제도를 활성화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인턴십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평소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서 미리 실무를 경험하기 위해 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다. 뿐만 아니라 어학능력과 실무경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해외인턴십을 떠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론으로만 배우던 것을 사회에 나가기 전에 미리 경험해보자는 것은 어떠한 수업시간보다 더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다. 물론 처음 해보는 일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 훈도 많이 나지만 어디서 이런 경험을 해보겠는가.

만약 인턴십프로그램에 관심 있다면 여기 이들의 좌충우돌 인턴체험기를 주목하라.

“더 큰 꿈이 생겨요”

어학연수와 인턴십의 기회를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해외인턴십프로그램에 참가한 김형남(기계공학 3) 학생. 캐나다에서 했던 해외인턴십은 영어뿐만 아니라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 그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해외인턴십에 참가했던 선배의 말과 수업시간에 인턴십에 대해서 들은 뒤 차근차근 준비하게 된 해외인턴십. 그는 “영어 등 항상 준비해두면 기회

는 빙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꾸준히 준비하다보니 해외인턴십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에 대한 두려움도 없애고 평소 공부하던 내용을 직접 접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한다.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의 인턴십. 처음에는 적응하기도 힘들고 업무 중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힘들기도 했다. 실무에서 실수만 있을 수 없는 법. 지시사항을 잘못 이해해 실수도 하고 눈물을 쏙 빼기도 했다.

“점점 적응해가면서 영어실력도 늘고 일도 잘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나중에 외국에 나가서도 직업을 구하는데 두려움도 줄어들었어요. 더 넓은 곳에서 이런 경험을 쌓아서 그런지 꿈도 더 커지고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인턴프로그램에도 도전할 계획이다.

해외인턴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가서 영어를 배운다는 생각에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실무에서 적응하기 힘들다”며 “토익도 중요하지만 가서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회화를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하는 인턴십이기에 선뜻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며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턴십, 강력추천해요”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여름방학 산학협력 인턴 실습프로그램에 참가한 송혜진(영어영문 4) 학생은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내기 위해 정신이 없다.

취업이 코앞에 다가온 그에게 ‘인턴실습생모집’이라는 글이 눈에 띄었다. 서류심사를 거치고 2번의 면접을 통해 드디어 실습생의 기회가 주어졌다.

인턴십의 기회를 잡기 위해 여러 포털사이트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해보고 베타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를 했다.

그는 “면접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많은 것을 배웠다”며 “자기소개서부터 어떤 것을 준비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많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그의 업무는 이슈를 찾아 네이버에서 찾아볼 수 있게 검색키워드를 올리는 등 네이버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이슈를 전달하는 것이다. 인턴이라고 해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건 아니다. 주어진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인턴이지만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한다. 인턴이지만 자세가 중요하다.

“아르바이트를 통해서도 사회경험을 할 수 있지만 직장에서 일은 해보는 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일뿐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돼요.”

이번 인턴십을 통해 경험뿐만 아니라 앞으로 진로까지 정한 그는 학생들에게 인턴십프로그램을 추천했다.

그는 “인턴십제도가 많아지면서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회사가 있다면 도전해보는 게 좋다”며 “사전에 많은 조사를 하고 준비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인턴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미래에 대한 준비이기에 한번쯤 도전해보는 게 좋은 것 같다”며 “면접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것을 배우기 때문에 도전자체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주 기자 lkj@cheju.ac.kr



송혜진(영어영문 4) 학생

현장 속으로 GO GO → 총여학생회

두근두근, 콩닥콩닥

‘제2회 아라여성축제’ 11일 준비 이상무!



캠퍼스의 9월 무지개 빛 사랑이야기가 가득하다.

오는 11일 열리는 ‘제2회 아라여성축제’는 학생들에게 축제를 안겨주고 있다. 학생들의 기쁨을 풍덕풍덕 살피게 하는 이들은 총여학생회 일원들. 지난 30일 축제의 막바지 준비로 하루 하루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찾았다.

늦은 6시 학생회실을 찾은 시간에는 이미 축제의 행사진행에 대한 회의가 한창이었다. 이 날의 회의의 안건은 기획한 이벤트의 준비 상황, 행사소품 준비 등이다.

그들은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온 요즘 축제에서 진행될 행사 하나하나를 점검하기에 하루가 짧다.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빠뜨린 것은 없는지 오랫동안 준비해온 축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

“일찍부터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준비사항이 마무리 된 상태예요.”

이들은 여성축제를 준비하며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왔다. 축제준비는 지난 6월부터 시작됐다. 6월 20일 기획회의 시작으로 방학 내내 12

문화
지대

현민식 서예문인화총연합회 대표회장

“젊은이들이여! 자신의 미래의 모습 살펴보길”



탐라의 돌, 라석(羅石)에게는 투박한 몇몇 변화가 아름다. 새롭게 탐라에 있다.

나고 자라 제주의 돌을 닮아간 사람. 우직한 신념으로 한평생 서예가의 길을 걸어온 리석 현민식(75) 선생을 만나봤다.

그에게 있어 서예가의 길은 ‘팔자 소관’이다. 그러나 타고난 운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된 길이 아니라 세상에 그를 있게 하는 커다란 힘과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였을까. 그는 고희를 넘긴 나이까지

인생 전반을 서예를 위해 살아올 수 있었다.

한평생 서예의 길을 걸어온 그지만 처음부터 서예가의 길을 택한 것은 아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를 따라 글을 쓰곤 했으나 그에게 서예는 취미와 특기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사범대학을 졸업한 그는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했다.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그에게 인생의 어느 날 문득 전환점이 찾아왔다.

그는 길을 걷다 잠시 멈춰고 무심코 자신이 걸어 온 길을 돌아보게 됐다.

그는 “자신이 걸어온 길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내가 걸어온 길조차 나의 흔적이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이 길을 걷는다 해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못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많은 고민을 했고 마침내 자신의 흔적을 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 서예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그의 나이 20대 후반이었다. 그는 부산으로 올라가 사군자를 배우고 글씨의 모범이 되는 법칙을 사서 공부를 했다.

“한평생을 서예를 위해 살아왔지만 아직도 서예로서 갈 길이 멀게 느껴져. 모든 학문이 그렇듯 서예 역시 배우면 배울수록 모자람을 느끼거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면 언젠가는 정말 좋은 글씨를 쓸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어.”

얼마 전 그에게 서예가가 아닌 수필가라는 또 다른 이름이 생겼다. 최근 대한문학 수필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수필가로 등단하게 된 것이다. 작년부터 한 언론사의 부탁으로 간간히 신문에 글을 쓰기는 했었

으나 문단 등단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후배의 추천으로 등단하게 됐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지기에 서예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해 보지 못했지. 수필가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됐지만 여태껏 서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예가로서의 내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마지막으로 그는 대학생들에게 젊었을 적부터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길 강조했다.

그는 “요즘 대학생들은 자신이 무엇을 공부할지 정하지 않고 무작정 대학을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미리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며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jeun@cheju.ac.kr

문화
지대

제26회 ‘아라음악제’ 오는 6일



올해 26회를 맞는 ‘아라음악제’가 오는 6일 오후 7시 문예관 대극장에서 진행된다. 또 피아노 독주부터 협연기 협연 등이 준비돼 다양한 연주를 감상할 수 있다.

임자향 & 박순방 The Piano Duo Concert

오는 10일 문예회관 대극장

‘제주피아노학회 초청 임자향 & 박순방 The Piano Duo Concert’가 오는 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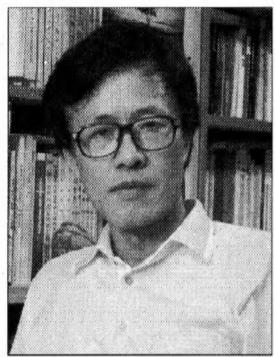
이번 음악회는 박순방(음악학과) 교수와 성신여대 기악과 강스텔라가 찬조한다.

임자향 교수의 피아노 2중주 연주로 진행된다.

‘바흐의 오르간 환상곡과 푸가 BWV. 542’ 등 총 4곡이 연주되며 마지막 곡에서 미리 학교에서 음악과 장전경 학우와 성신여대 대학원 강스텔라가 찬조한다.

무론유설

미국 단상(斷想)



김현돈 철학과 교수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오스틴 텍사스주립대학교에서 1년간의 방문교수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국의 중심부에 위치한 텍사스 주는 한반도의 5배가 넘는 면적으로 농촌과 도시가 겹친다. 지역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마저도 미국의 성인 남성이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공공연히 멘트를 할 정도다. 그런데 텍사스의 주도이자 대학 도시인 오스틴은 여느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도시였다.

건조한 아열대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의 변화가 있으나 겨울은 짧고 여름이 길다. 여름철 최고 기온은 섭씨 40도를 육박하지만 습도가 낮아 상대적인 체감 온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텍사스주는 공화당의 아성이며 부시가의 본고장으로 보수적인 채택률이 높은 곳이다. 지역 방송의 토크쇼 진행자마저도 미국의 성인 남성이 어떻게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느냐고 공공연히 멘트를 할 정도다.

그런데 텍사스의 주도이자 대학 도시인 오스틴은 여느 다른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리버럴한 도시였다.

내가 살던 그레이스톤가의 신호등 없는 네거리 정지 신호판 'STOP' 글씨 아래 여백에 누군가가 스포크레이로 '부시(BUSH)'란 글씨를 써 놓았는데, 일 년이 다가도록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철교 위나 도로변 곳곳에서 목격하는 반전 구호의 그라피티(낙서화)도 눈에 익숙

하다. 대학엔 사회주의를 연구하는 학생 서클이 있고, 마르크시즘을 주제로 한 강연회가 열리기도 한다.

몬테리주에서 발원해 와이오밍, 유타, 콜로라도 등 여러 주를 거쳐 남으로 남으로 유장한 흐름을 이어온 콜로라도 강이 넓은 강폭으로 오스틴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다. 떠갈 나무 숲으로 우거진 아름다운 강변은 사흘마다 않고 내가 애용하던 산책로였다. 한 시간 반 남짓 걸리는 이 강변로를 거닐며 고즈넉한 사색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던 맛은 잊을 수 없다.

개를 데리고 유유자적 키루, 키악의 노를 저으며 한가로움을 즐기던 택시들, 강변 짙은 파크의 라이브 무대, 풍성한 불거리와 현란한 전광쇼가 인상적이던 연말 할리데이 축제는 오스틴의 명물이다.

동북부와 서부, 남부 곳곳을 여행하면서 내가 경험한 미국은 여전히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철교 위나 도로변 곳곳에서 목격하는 반전 구호의 그라피티(낙서화)도 눈에 익숙

다. 겉으로 보기에도 미국은 자유의 천국이고 평화롭기 그지없는 나라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가장 위태롭고 불안한 나라가 또한 미국이다. 개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류가 동네 거리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늘 잠재적인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은 그 옛날 서부개척 시대가 임태한 원죄의 산물일 것이다. 먼저 총을 뽑아 상대를 거꾸러뜨려야 살아남고, 살아남은 서부의 총잡이들이 결국 정의의 사도가 되어 오늘날의 미국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는가.

그들이 오늘날 누리고 있는 평화는 원주민을 힘으로 제압하고 달성된 거짓된 것이기에 집단적인 피해 망상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제주도에 군사기지를 유치해 무장으로 평화를 달성하려는 논자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진정한 평화는 물리적인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오찬의 재외제주도민협회 회장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나의 고향 나의 부모님

제주사람이기에 고향 제주를 사랑하고 일본 땅에서 재일제주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오찬의 (61) 회장. 재일제주인 2세인 그는 동경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항상 고향 제주를 향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오사카에 있는 할아버지 를 따라 일본으로 갔다. 할아버지는 집 안의 종손이었기 때문에 다시 제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면서 일본에 머물렀다.

그의 부모님은 항상 고향인 제주를

그리워했고 그에게 제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한다. 그가 고등학교 시절 고향인 ‘제주도 표선면’을 한문으로 적어보라고 시킨 적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이 한국인임을 밝히지 않았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의 주변사람들 말고는 그가 한국인임을 몰랐던 것이다. 이름도 ‘토미야마’라는 일본이름을 사용했다. 예전에 부산을 토미야마라고 불렀던 점에 착안하여, 할아버지께서 자신에게 토미야마란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한다.

그의 부모님은 일본에서 대부분의 재일제주인들이 하는 밀바다 일들을 했다. 그러나 장사를 하는 게 서툴러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제주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걸 못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도 전형적인 제주사람이라서 장사에는 소질이 없어서 어머니가 많이 고생했어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정신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에요.”

야구로 채운 학창시절

남들보다 1년 일찍 진학하게 된 고등학교 1946년생인 그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1945년생인 줄 알고 있었다. 잘못 기재된 생년월일 때문에 남들보다 먼저 고등학교 입학통지서를 받게 됐다.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그는 공부 대신 평소 좋아하던 야구를 하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야구부에 들어갔다. 그의 고등학교는 오랜 야구부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였다.

“야구를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계속 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한 살 어렸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4번 타자를 하기도 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선택하게 된 야구가 어느새 그의 인생에 전부가 돼 있었다. 그러면 종 다클리를 다쳐 고시엔이라는 일본전국고교야구 대회에도 출전할 수가 없었다. 당시 달릴 수는 없었지만 타자는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부상 때문에 아닌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출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가 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아해 하기도 했

다.

고등학교 졸업 후 아는 선배의 추천으로 대소하라는 회사의 야구단에 들어가게 됐다. 그는 그곳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았고 성적이 좋아 한국원정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그 당시 크라운맥주, 연세대, 농협 등과 시합을 했는데 총 14경기 중 13경기를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그 당시 상대팀 선수 중 지금 감독을 거쳐 사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의 김응룡씨도 있었어요. 경기 덕분에 한국에 처음 가게 됐고 할아버지도 만나고 왔어요.”

좌절 그리고 새로운 시작

그는 다리부상이 뒤리로 이어지면서 인생의 전부였던 야구를 그만 두게 됐다. 그 역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야구를 할 수가 없었다. 야구선수라면 누구나 꿈꾸는 진구(神宮) 야구장에서의 경기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때 처음으로 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신한테 진 것 같다는 생각에 큰 좌절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좌절감에 방황을 하던 그는 힘들었던 그 시기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을 찾기로 결심했다.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1년 동안 막노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4~50대였고, 농사마저 짓다 포기하고 막판에 내몰린 사람들이었다. 주변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쁜 일을 하고 도망 온 사람일 것’이란 생각을 했다.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주변의 따가운 시선도 있었지만 그 1년이란 시간은 그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준 값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을 하고 고모부 친구의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됐다. 그 회사에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였을까. 고모부의 친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오찬의’라는 사람만 보고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줬다. 그 당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으면 생각도 못 할 일이었다. 그의 집안 형편은 어려웠고 그 역시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그런 그에게 고모부의 친구는 그의 끈기와 성실성을 믿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줬다. 당시 25살이었던 그는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면서 인생의 새 출발을 하게 됐다.

기회는 올 때 잡아야 해

부동산 관련 일은 그의 인생에 있어 최고의 기회였다. 가진 것도 없는 자신을 믿고 도와줄 이가 몇이나 된다 말인가. 고모부 친구와의 만남은 그에게 좋은 기회였고 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당시 부모님의 돈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부럽기도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다가오는 기회를 잡기 위해 모든 일을 열심히 했다. 어렸을 때부터 손해 보는 걸 싫어했던 그는 일을 시작할 때 벌린 돈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했다.

“인생의 길길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인생이라는 긴 시간 속에서 언제나 기회는 있어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죠. 기회를 놓친 사람은 ‘운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자신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를 지켜주길

제주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는 그는 제주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이 많다. 제주의 자연은 제주시민들의 재산이므로 발전도 좋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키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산업을 증시할지 자연을 중시 할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야 한다”며 “자연은 있는 그대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lkj@cheju.ac.kr

관동제주도민협회

현지에서 ‘내고향 사랑운동’ 확산에 앞장

제주·일본 가교역할 특톡

재일교포들의 아픈 역사가 담겨있는 일본의 관동지역. 일본 어느 곳이든 재일교포들의 상처가 남아있지만 관동지역은 유난히 그들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곳이다. 그 곳에는 1923년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던 당시 많은 재일교포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일본인들에게 죽음을 당한 아픈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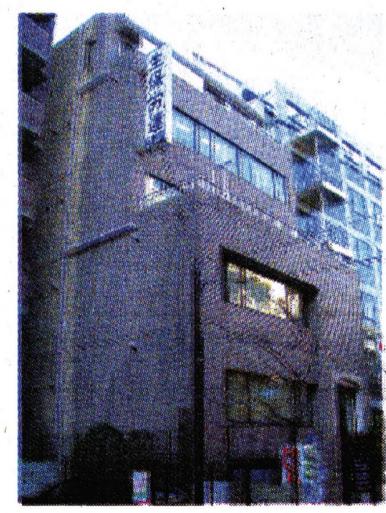
도쿄의 우에도 공원 서쪽에 위치해 있는 분묘구 유시 지역에 찾아가면 낯선 일본 땅에서 재일제주인들을 만날 수 있다.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기 위해 이 곳을 저 골목을 한참이나 헤맨 후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를 찾을 수 있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작은 제주를 만난 듯 관동제주도민협회에는 제주가 있었다. 협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면 창립 당시부터 활동했던 사진들이 진열돼 있다. 향토학교로 제주에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들을 통해 제주의 변화 역시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관동제주도민협회는 1961년 ‘재일본제주개발협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약 45년 동안 재일제주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재일제주인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어려웠던 당시

김글묘목을 보내거나 전기, 수도시설 등 고향 제주를 돋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관동제주도민협회는 ‘제경’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자체수익을 창출해 협회를 운영



도쿄 분교구 우시에 위치해 있는 관동제주도민협회 사무실

하고 있다. 여기서 나온 수입으로 협회를 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을 제주로 보내 고향 제주에 대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청년부 육성사업을 하고 있다. 또 신년회, 성인식, 친목여행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관동지역에 있는 재일제주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역할도 한다. 뿐만 아니라 매년 2차례 회지인 ‘재일본관동제주도민협회 뉴스’를 발간해 관동제주도민협회의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의 활동이 적어 혜전만큼 활성화 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에 대해 오인돈 관동제주도민협회 청년회 회장은 “앞으로 재일제주인 3~4세대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들에게 제주에 대해 알려주고 관동제주도민협회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회려함 속에 재일교포들의 상처가 남아있는 곳 도쿄. 그 속에, 작은 제주 관동제주도민협회가 자리잡아있고 오늘도 제주인들을 위한 하루가 시작된다.

이경주 기자 lkj@cheju.ac.kr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 도서기금 전달

1971년부터 36년째 제주대 사랑 이어져



지난달 13일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가 도서기증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본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회장 박태강)가 36년째 제주대 사랑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13일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가 제주 대를 방문해 도서기금 32만5000엔을 기부했다. 송성대 대학원장을 도서기금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박태강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박태강 회장은 “우리들의 뿌리인 제주도에 대한 관심으로 매년 도서 기증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며 “도서기금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

면 한다”고 말했다.

제주대는 도서기금 기증식에서 그 동안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재일제주인센터 건립과 국제언어문화센터에서 한국어와 문화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관서제주도민협회 청년회는 1971년부터 ‘책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도서를 구입해 기증해 오다 지난 1994년부터 도서기금으로 기부해 도서 확충에 기여하고 있다.

정선화 기자 sun@cheju.ac.kr